



#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편집인 이연택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T.02)733-3991~3 인쇄 (주)한우리SJM

2010년 (단기 4343년) 7월 30일 (금)

<http://dongguk.or.kr>

제219호

## ‘일하는 동창회’ 1년

# 소통과 협력으로 도약의 새출발



▲ 교수학술연구비 1억원 모교 총장에게 전달



▲ 금년 1학기 재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 장학생 5배 증가, 모교 지원금 3억4천5백만원 전달

### 재단 · 학교 · 동창회 역할 분담 공감대 조성

본회 활동이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동문사회에 크고 작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는 이연택 제25대 회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본회에서 동문 조직화 및 모교 발전 사업 등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로 향후 동창회 활동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제25대 동창회에서 지난 1년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사업은 본회 조직 강화와 장학사업 확대 등 모교에 대한 가시적 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동문들을 결집시켜 모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학교의 위상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 각 언론사 등의 대학평가 순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에 동창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 요체이다.

#### 재단, 재단, 학교, 동창회 서로 협력

모교는 지난 4월 '2020 발전계획'을 상안해 제시하고, 재단과 종단도 모처럼 화합과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동국'은 이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이한 분위

기이다. 이에 동창회에서 동창회의 역할을 다잡고 있는데 무엇보다 네 주체간 화합을 통해 한 방향으로 굴러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본회는 현안이 있을 때 종단의 총무원장과 재단이사장실 등을 방문해 협력을 구하고 있다. 모교에 약학대학 신설이 성사되었을 때는 본회가 주선하여 재단, 학교 관계자 초청 축하모임을 갖고 격려했다.

#### 본회 상임위원회 월 1-2회 개최

본회는 회칙에 따라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기획, 총무, 조직, 대외협력, 재정, 장학, 홍보 등 13개분야 담당 부회장이 중심이 된 상임위원회를 설치, 매월 1-2회씩 모임을 갖고 있다. 위원은 업무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담당 업무별로 2-4명의 부회장을 배치해 분야별 업무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기본 운영방침과 중요사업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설득력있는 합의를 도출해내고 있다.

#### 동문 참여도 갈수록 높아져

본회의 달라진 모습중 하나는 예년에 비해 각종 모임에 참여도가 높아지고 회비입금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제25대 동창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 동문들의 애교심 향상, 모교 발전속도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롯데호텔에서 가진 '동국인의 밤'이나, 지난 1월의 '동국포럼'과 지난 5월의 '동국인 골프대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많은 동문들이 동창회 모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회비 납부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회비 납부율을 보면 예년과 비교해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 기금조성 100억 목표

이연택 회장 취임이후 가장 큰 성과는 기금 조성이다. 이미 지난해 25억2천만원을 모금한 것에 힘입어 임기 중에 100억까지 채우겠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본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기금을 비롯해 동창회관 건립기금, 발전기금 등이 있다. 기금 조성은 여

러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은행의 CMS를 활용해 소액·다수 참여 방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회는 기부자들을 위한 예우 규정을 준비하고,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금융계 재직 동문들을 중심으로 한 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 장학기금 기본재산 10억원으로 늘려

총동창회의 유지재단인 장학회가 지난해 12월 정관을 변경했다. 법인명칭을 '재단법인 동우장학회'에서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로 변경하고 기본재산을 7억7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림과 동시에 이사 정수도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했다.

#### 재학생 장학금 40명서 200명으로

장학재단 기본재산과 각종 회비 증가는 장학사업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지난해까지 장학금 수혜자 수가 년 40명이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년 200명으로 5배나 늘렸다.

<2면에 계속>

‘일하는 동창회’ 1년

# 학과-대학원 등 단위동창회 활성화에 역점

### ◆ 2010년도 모교 지원금 현황

1학기 장학금	1억 8백만원
2학기 장학금	1억원(예정)
교수학술연구비	1억원
고시반 학습지원비	3천750만원
합 계	3억4천550만

### <1면에서 이어짐>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 총액도 년 4천



▲ 본회는 동국의료원과 동문의료비 할인 협약을 체결, 시행에 들어갔다.

만원에서 금년엔 2억8백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학금 전달은 지난 1학기에 서울캠퍼스 64명, 경주캠퍼스 44명 등 108명의 재학생에게 100만원씩이 지급되었으며, 2학기에는 100명에게 전달 예정으로 있다.

동창회 장학금은 앞으로 500명선까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 1학기 장학금 전달은 각 학과와 대학원 동창회가 수혜 대상 후배들을 추천토록 하고, 나아가 해당 학과 후배들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선배들은 후배 사랑, 후배들은 선배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자리로 만들었다.

### 교수학술연구비 1억원 지원

그동안 재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던 동창회의 모교에 대한 지원금이 금년엔 교수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본회는 지난 1학기에 교수학술연구비로 오영교총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 지원 목적은 모교 교수들의 사기 진작에 있지만, 한발 더 나아가 교수들의 연구논문이 언론매체 대학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모교의 평가순위를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국가고시 준비생에 학습지원비

본회는 지난 6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등 각종 고시 1차합격자 125명에게 30만원씩 총 3천750만원의 학습지원비를 지급했다. 이번 지원금은 2차시험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기대감을 전달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

도록 배려한 것으로 모교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 모교 교문 건립 봉헌 추진

본회는 “모교에 교문다운 교문이 없다”는 다수 동문들의 지적에 따라 동창회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상징이 될 수 있는 교문을 건립, 봉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교문 건립

추진은 우선 중구청이 시행하는 정문 진입로 확장공사를 보아가며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모교 정문은 2차선이던 차로가

## 국가고시반 장학센터 · 교문 건립 사업 추진

### 의료비 할인 협약 등 동문 복지도 확대

## ‘명예의 전당’ 확장 ... 기부자 예우규정 마련

금년 5월에 3차선으로 확장되었으며, 내년 이후에 다시 4차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본회는 지난 4월 13일 교문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교적인 전통을 현대 디자인과 결합한 일주문 형태의 교문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 일정, 위치 및 진입로, 건축설계 등에 대해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 국가고시 장학센터 건립 계획

본회는 국가고시 합격률이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대학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국가고시 준비생들의 기숙사 시설이 될 장학센터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장학센터는 사법, 행정, 기술, 의무, 입법고시와 회계사, 변리사 등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숙소와 식사까지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빠른 시일내 성사를 모색하고 있다. 장학센터는 가급적 모교와 인접하거나 모교내에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 학과 · 대학원 회장단 간담회 수시 개최

본회는 조직 강화의 일환으로 학과·대

학원 회장단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있다. 이는 조직의 체계화·활성화·효율화에 목표를 둔 것으로 본회 조직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학과와 대학원 동창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본회는 이와 더불어 지방동문회 순회, 직장·친목동문회와의 유기적 관계 등을 통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꾀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해 11월과 금년 1월 및 3월, 6월 등 4차례에 걸친 학과·대학원동창회 회장단 모임은 동창회가 본부 중심에서 하부조직과 함께하는 상시적 네트워크화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 ‘명예의 전당’ 확대 시공

본회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동창회관 건립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장학기금과 발전기금 기부자까지를 포함한 총체적인 명예의 전당으로 지난 7월 중순에 확대 시공되었다. 명예의 전당은 5억원 이상 기부자는 실물크기 흉상을 세우고, 1억원 이상 기부자는 실물크기의 80%, 5천만원 이상 기부자는 실물크기의 70% 부조물을 명예의 전당 벽면에 부착하였다. 1천만원 및 5백만원이상 기부자는 명패를 부착했다. 이 명예의 전당은 기부자들을 영원히 기리는 감사의 표시로 설치

된 것으로 여타 대학 동문회의 모범으로 회자되고 있다.



▲ 본회 회의실에 설치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명예의 전당’

### 홈페이지 개편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일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 홈페이지는 아직도 활로를 찾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회에서는 홈페이지의 틀을 뉴스중심으로 대폭 개편하여 동문들과 소통하는 동창회, 동문들에게 서비스하는 동창회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현재의 홈페이지는 지난 2006년 7월 7일 첫 오픈된 이래 한번도 리뉴얼없이 운영돼 특히 젊은 층 동문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왔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오는 8월중에 오픈된다.

### 동국의료원과 의료비 할인 협약

본회는 동문들이 모교 의료원 산하병원인 일산병원, 경주병원, 분당한방병원 등을 이용할 시에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14일 모교 동국의료원과 ‘지정 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가능해진 의료혜택은 동문회비 납부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어 본회의 확인을 거쳐야만 의료비 감면이 가능하다.

### 동국인명록 2010년도판 제작

본회 22만 동문의 신상정보를 담은 동국인명록 2010년판이 금년 하반기에 발행된다. 이번 동국인명록은 지난 2005년판에 이어 5년만에 제작되는 것으로 2010년 2월 졸업자까지의 이름과 주소, 직장, 연락처 등이 수록된다. 본회는 이번 동국인명록 작업을 계기로 동문들의 이메일 주소등을 파악하여 향후 동창회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 본회 사무실 리모델링

본회 사무실이 지난 6월 리모델링 공사를 마쳐 본회 사무처를 방문하는 동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있다. 본회 사무실은 지난 1996년 6월 1일 입주후 처음

으로 밝고 깨끗한 분위기로 리모델링을 단행하였다.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회장실을 회의실로 설계 변경하여 동문들의 각종 모임에 개방이 가능하도록 시설한 것이 특징이다.

# 원로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본회와 모교발전에 선도적 역할 다짐



▲ 라운딩에 앞서 클럽하우스 앞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정상영 고문 초청 골프

본회 원로동문 친선골프 라운딩이 정상영 본회 고문(KCC 명예회장) 초청으로 지난 6월 26일 오전 경기도 여주 금강C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이연택 본회 회장을 비롯 정재철, 권노갑, 류주형, 원용선 등 본회 역대 회장들과 이민휘, 김동정, 박종윤, 김재기, 송석구 고문, 조문형, 장장순, 최규철, 구자선 부회장 및 송석환 수석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라운딩 후 가진 간담회에서 정재철, 권노갑 고문 등은 “학교발전에 총동창회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며 원로동문들도 힘을 보태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로동문들은 이러한 뜻깊은 모임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본회와 모교발전을 위해 연 2~3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 각 학과·대학원 임원단 연석회의

본회는 지난 6월 23일 오후 각 학과·대학원 임원단 연석회의를 본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무역학과총동문회 정창근 회장, 식품공학과 총동문회 이황 회장, 경영학과총동문회 김철순 회장 등 총 14개 학과·대학원 동창회 임원단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0년도 총동창

회 장학금 및 교수 연구비 지급 내용 보고 △총동창회 제72차 정기이사회 및 제29차 정기총회(5월 26일) 결과 보고 △2010년도 동국장학회 사업계획 △회칙 개정 안내 △2010년도 동국장학회 사업계획 보고 △6·2 지방자치단체 선거 결과 (동문 당선자 현황) 보고 △각급 단위동문회 협조사항 안내가 이뤄졌다.

### 한기호 동문

#### 7.28 국회의원 당선



한 기 호 (90/93 행정대학원) 동문이 지난 7월 28일 치러진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지역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철원이 고향인 한 동문은 육군사관학교 31기로 육군 2사단장, 5군단장, 교육사령관 등을 지냈으며 지난 5월말 40여년의 군생활을 접고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한 동문은 “선거구 특성상 민 관군 접경지역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군부대 관련 규제 해결과 도시계획 수정 등을 통해 찾아오는 접경지역을 만드는 것”이 공약 중 하나라고 밝혔다.

### 사무총장에 전영화 동문

#### “자원봉사자 역할 충실”



본회 25대 집행부 사무총장직으로 전영화 동문(65/69 경행, 前 울산대 교수)이 지난 7월 1일 자로 부임했다.

전영화 신임 사무총장은 모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ROTC 7기로 군 복무후 국가기관에서 30여년간 봉직하면서 모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만학도이다. 지난 2005년부터는 모교 겸임교수로 강의하면서 출강수당 전액을 장학기금으로 기증하여 동문들 사이에서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 총장은 “이번에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로서의 초심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만원 상당의 40인치 LCD TV와 2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각각 기증했다.

이번 기증으로 본회는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 능력의 효율화를 꾀하고 사무처를 방문하는 동문들에게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 본회 상임위원회 대폭 보강

### 동국포럼·홈커밍데이 개최안 논의

본회 상임위원회가 지난 7월9일 아침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정 상임고문, 송석환 수석부회장, 법타스님(기회담당부회장) 등 상임 부회장단 25명이 참석했으며, 이연택 회장은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송석환 수석부회장 주재로 신임 상임위원(직능별 담당부회장)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상견례,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담당별 부회장을 직능별로 1인에서 2~4인으로 늘리고 70년대와 80년대 학번을 대거 참여시켜 조직의 활성화해 목적을 두고 구성했다.

상임위원회 안건으로는 △학과·대학원 동창회 조직 활성화 △홈커밍데이 개최안 △동국포럼 개최안 △지방자치단체장 당선동문 축하회 개최안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안 △총동창회 명예의 전당 리모델링안 등이 상정되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논의사항중 홈커밍데이는 본회와 학교측이 공동 주최하고 주관은 학교측이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동국포럼은 년 2회 정도로 시기와 장소, 초청연사 등은 사무처가 맡도록 위임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축하회는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아 연말 동국인의 밤에서 축하패를 전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밖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규정 마련과 ‘명예의 전당’ 확대 리모델링안은 사무처에서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7월 1일 취임한 전영화 신임 사무총장의 인사가 있었다.

### ▶ 본회 상임 운영위원회 명단

회 장	이 연 택	56/61 법학
수석부회장	송 석 환	64/68 농경
기 획	법타스님	67/74 인철
기 획 1	이 흥 섭	80/84 회계
총 무	이 재 형	64/68 불교
총 무 1	김 진 역	73/80 경영
대외협력	서 영 준	64/68 법학
대외협력 1	우 태 주	66/70 경영
조 직	정 환 민	65/69 농학
조 직 1	고 용 규	70/74 정의
조 직 2	주 승 균	82/92 한의
조 직 3	정산스님	88/92 선학
재 정	손 학 중	65/69 농경
재 정 1	이 상 직	82/89 경영
장 학	박 용 재	66/70 법학
장 학 1	이 황	72/08 식공
학 술	연 기 영	71/75 법학
학 술 1	유 국 현	79/83 화학
취 업	강 영 규	70/77 경행
취 업 1	서 승 삼	71/78 경제
홍 보	문 병 호	68/72 정의
홍 보 1	이 재 용	84/88 수교
체 육	박 상 호	64/68 법학
체 육 1	김 오 현	76/80 체교
문화예술	이 호 정	77/81 연영
문화예술 1	최 진 수	78/85 연영
국 제	차 민 수	69/73 경제
여 성	김 영 순	65/69 화학
여 성 1	박 미 진	75/79 건축
여 성 2	손 인 환	81/91 미술

### 본회에 TV와 에어컨 설치

#### 동심회와 동악회 각각 기증

동심회(회장 = 송석환, 본회 수석부회장)와 동악회(회장 = 이제곤, 본회 감사)에서 지난 7월 본회 사무실에 150

제72차 정기이사회

제29차 정기총회

# 본회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통과

## 이연택회장 “모교와 공동운명체 의식 확고히 해야”

본회 제72차 정기이사회 및 제29차 정기총회가 지난 5월 26일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 앞서 열린 정기이사회는 임원 291명이 참석(위임자 133명 포함)하여 성원되었다.

이연택 본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가 모교와 더불어 동국의 명예를 지키고 또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협력해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리며 책임감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국가고시 합격률을 높이는 등 모교 평가 순위 상승을 위해 우리 동문들은 공동운명체로서 동창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이사회 안건으로는 △2009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회칙 개정 △기타안건 등이 상정되어 의안별로 논의가 이뤄졌다.

제1호 의안인 '2009년도 회무 및 결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곤 감사로부터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 감사는 보고에서 회계처리와 업무처리에 대해 심도있게 감사한 결과 △동창회 회계의 복식부기 제도 도입 △임원분담금 독려 등을 통한 회비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 등을 지적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어 회무 보고는 사회자인 박용재 장학담당 부회장 겸 사무총장으로부터 장학사업 등 주요부문만 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통과되었다.

제2호 의안인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중점사업 계획으로 △분회 재정 확충 △조직활성화 및 홍보활동 강화 △장학사업 확대 △국내 지부·지회 및 해외지부 네트워크 강화 △모교 지원사업 확대 △동창회관 건립 기금 확대 등이 상정되었다.

또 예산안으로는 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3억7천여만원이 늘어난 8억7천여만원을 심의 통과 시켰다. 이에 대한 주요사업비로는 조직강화비, 장학기금, 이사회·총회비, 동국인의 밤, 동국포럼 경비 등이 증액되거나 신설했으며, 회기말 흑자(이월액)는 2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제3호 의안인 회칙개정과 관련해서는 총 9장 38조인 종전 회칙(2008년5월28

일 개정)을 제9장 36조 및 부칙 2조로 변경한 새 회칙안에 대한 상정이 있었다. 이날 회칙개정안은 사회자로부터 먼저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성안되었다는 보고에 이어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한 뒤 심의에 들

었으며 제29차 정기총회가 종료되었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모교 정각원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불사를 통해 모금된 장학기금 1천만원을 이연택회장에게 정각원장 법타스님이 직접 전달했다.

△ 사업을 확장·보완하였으며,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를 설립 운영함을 명시하여, 동국장학회가 총동창회의 유지재단임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회원의 종류를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하고, 준회원을 정회원으로 통합함(제6조~제9조).

△ 회원의 권리의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원의 회비 분담금 미납시 임기중이라도 면직 가능하도록 함(제10조).

△ 임원의 종류를 명예회장(신설), 고문, 지도위원,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로 조정함(제11조, 12조, 14조).

△ 임원의 선임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임부회장(업무담당, 지역담당 등), 상임고문 제도를 신설함(제12조, 19조).

△ 회의 제도를 단순화시킴(총회-이사회-상임위원회(산하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설치)로 함(제15, 17조, 19조, 20조).

△ 상임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20인 내외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참모조직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함(제20조).

△ 회계연도를 정부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하고, 회계구분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장학회 회계)로 나누어 규정하며, 임원회비를 분담금으로 하여 동국장학회에서 수납하고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함(제25조, 26조).

△ 모교재단 임원의 파송에 관한 장(제8장)을 신설하여 파송임원의 선출근거(교육관계법령)와 임기, 파송임원의 의무, 재선임과 소환 등을 상세히 규정함(제32~34조).

△ 신임회장의 임기를 1월 1일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차기 회장의 임기 시작을 2012년 1월 1일로 부칙에 규정함(부칙 제2조)

△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임원(회장)선거구직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둠(부칙 제3조)

## 재정확충 통해 모교 지원사업 강화 '투명운영으로 신뢰받는 동창회' 다짐

어갔다. 논의의 쟁점으로는 “회장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리자”는 회칙안에 대해서 임원 간에 찬반의견이

### ■ 개정 회칙의 특징

- △ 조직강화
-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



### 개정된 회칙 주요 변경내용

- 회계연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 상무이사 → 상임이사로 임원명칭 변경
- 전자계산원, 사회교육원 등도 회원 자격

엇갈렸으나 “종전대로 가자”는 안으로 의결했다.

제29차 정기총회는 이사회가 끝난뒤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정기총회에서 참석 회원들은 앞서 이사회에서 안건 심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으므로 “이사회 상정안대로 의결하자”고

△모교발전에 공헌

### ■ 개정 회칙의 주요내용

△ 조직강화를 위하여 산하조직을 명시하고 지부 지회에 관한 조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 제21조, 22조, 23조)

### 인천지부 임원회의

연수구청장·구의원 축하

인천광역시 동문회(회장=최종협, 54/58경제)는 지난 7월29일 송도리마다 호텔에서 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이창환 연수구의원에게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본회 이연택 회장을 대신해 전영화 본회 사무총장이 참석 격려하였다.



▲ 본회 회의실 리모델링 후 첫번째로 건축공학과 임원회의가 열렸다.

### 조경학과 개설 30주년 행사

경주캠퍼스 조경학과 개설 30주년 기념식 및 제28회 졸업작품 전시회가 조경학과동창회(회장=배정석) 주최, 80학번동기회(회장=허남태) 주관으로 지난 5월30일 교내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조경학과 80학번동기회는 입학 30주년을 기념해 학교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학교측에 전달했다.

# 민병덕동문 국민은행장 취임

## 국내1위 은행의 대표적 영업통



민병덕(74/78경영) 동문이 지난 7월 29일 국민은행장에 취임했다. 민동문은 1954년 충남 천안 출생으로 보문고와 모교 경영학과를 졸업한후 1981년 옛 국민은행에 입행해 충무로지점장, 경서지역본부장, 남부영업지원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08년부터 개인영업그룹 부행장으로 일해온 영업통이다. 민동문은 폭넓은 대인관계와 수평적 리더십으로 내외부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은행장 선임 절차에서 13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높은 득표 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은 국내에 1,197개 지점, 해외 5개 지점을 거느리고 있으며, 직원수 2만7천여명, 자산 273.8조원으로 국내 리딩뱅크 역할을 하고 있다. 민동문은 7월29일 국민은행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된 바 있다. 한편 시중은행장을 역임한 동문으로는 한일은행장을 지낸 정재철(48/52 정치)동문을 비롯, 부산은행장 황용운(50/54 경제), 제일은행장 송보열(53/57 경제), 주택은행 및 외환은행장 김재기(56/60 경제), 보람은행장 구자정(61/64 상학)동문 등이 있다.

민동문은 1954년 충남 천안 출생으로 보문고와 모교 경영학과를 졸업한후 1981년 옛 국민은행에 입행해 충무로지점장, 경서지역본부장, 남부영업지원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08년부터 개인영업그룹 부행장으로 일해온 영업통이다. 민동문은 폭넓은 대인관계와 수평적 리더십으로 내외부의 두터운 신망

# 형종호 동문 장학기금 1억 기부

## 지난달 말 이연택회장에게 직접 전달



형종호(56/61 법학, 본회 부회장, 삼공기어공업(주) 회장) 동문이 지난 6월 30일 동국장학회에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회사이다. 주로 상용차(Commercial Vehicle)의 트랜스미션(Transmission)과 액슬(Axle) 등에 쓰이는 기어(Gear)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기계용, 산업용 기어류도 함께 만들고 있다. 삼공기어의 모든 제품은 ISO9001 등 세계적 품질관리기준에 맞춰 생산됨에 따라 국내 OE시장은 물론, 국내외 보수용 시장에서도 품질을 인정받아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한 결과 전체 매출의 70%가량을 미국, 동남아 등 해외에 판매함으로써, 지난 2001년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데 이어, 불과 3년만인 2004년에 수출 1000만불 목표를 달성하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전영화 사무총장이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형 동문 회사를 방문해 형 회장을 뵙고 장학금 기증에 대한 본회 이연택 회장의 감사 서신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직접 밝혔다.

형종호 동문이 경영하고 있는 삼공기어공업(주)은 '최고의 품질(High Quality), 최적의 가격(Reasonable Price), 최적기 납품(Timely Delivery)'을 경영 철학으로 1967년 창업한 기어전문제조

# 동국장학회 이사·감사 선임

## 감사에 김진억 이흥섭 동문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제2010-2차 이사회가 지난 6월10일 오전 본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이연택 동국장학회 이사장을 비롯 김동정 이사, 전순표 이사, 원용선 이사, 이무웅 이사 등 9명의 이사중 8명(류주형 구자선 한우삼 이사 위임)이 참석해 성원되었다.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는 6월 26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박준형이사, 원용선이사, 한우삼이사, 구자선이사 후임 선임건이 다뤄져 4명 이사 모두의 연임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고시 1차에 합격하고 2차시험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총125명의 재학생들에게 총 3천7백50만원의 학습지원비를 지급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또한 지난 6월 29일에는 제2010-3차 이사회가 이연택 이사장과 김동정이사, 류주형이사, 전순표이사, 원용선이사,

구자선이사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임기가 만료된 송석환 감사와 서영준 감사의 사임안을 의결한뒤 신임 감사와 증원 이사 총원안을 상정, 논의했다. 이사 총원은 동국장학회 정관 변경에 따라 이사수가 9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되는데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증원된 6명중 4명만을 우선 선임했다. 이날 신임 이사에는 그동안 감사로 동국장학회 발전에 기여가 컸던 송석환(64/68농학, 본회 수석부회장), 서영준(64/68 법학, 본회 대외협력담당부회장)감사를 비롯해 나경미(70/74 정의, 제일테크노스 부사장, 여)동문, 김진문(64/70 경영, 신성약품 회장)동문을 확정했다. 나머지 2명의 이사는 추후에 선임하기로 했다.

신임 감사는 기금관리와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취지에서 김진억(73/80 경영), 이흥섭(80/84 회계) 동문등 금융계와 회계사 재직동문을 선임했다.

# 김진문동문 장학기금 3천만원

## 남다른 모교애로 동창회 참여 활발



신성약품(주) 회장 김진문(64/71 경영)동문이 지난 7월26일 동창회 장학기금으로 3천만원을 기부했다. 김동문은 지난

김동문은 모교에서 경영대학원, 국제정보대학원 고위정책과정, 불교대학원 불교경영자 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모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동국라이온스클럽 회장, 경영학과-경영대학원-국제정보대학원 동창회장을 역임한 김동문은 애교심도 남달라 모교 발전기금을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회사해 왔다.

1971년 졸업후 40여년간을 제약업계에 종사해오고 있으며 한국의약품 도매협회 부회장,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국근육병재단 이사 등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오고 있다.

김동문은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2010-3차이사회에서 임기 4년의 신임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 ◆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임원현황(2010년 7월 현재)

	성명	입학/졸업/전공	근무처명
이사장	이연택	56/61 법학	총동창회 회장
이사	김동정	53/57 법학	신사합동법률사무소
	류주형	53/57 농학	인성개발(주) 회장
	전순표	53/57 농학	(주)세스코 / (주)팜클 회장
	박준형	57/63 경제	신라교역(주) 회장
	원용선	59/63 영문	(주)남양이앤씨 회장
	홍파스님	63/67 불교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한우삼	63/69 농학	태양금속공업(주) 회장
	송석환	64/68 농학	동진기업(주) 회장
	서영준	64/68 법학	(주)동양 회장
	김진문	64/71 경영	신성약품(주) 회장
	나경미	70/74 정의	제일테크노 부사장
	구자선	79/81 경원	(주)자연과사람 회장
감사	김진억	73/80 경영	KB국민은행 안양영업본부장
	이흥섭	80/84 회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 6·2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12명 당선



**고 남 석**  
인천 연수구청장  
철학과  
전 인천광역시 의원



**김 복 규**  
경북 의성군수  
행정학과  
전 의성·고령군수



**김 충 석**  
전남 여수시장  
상학과  
전 여수시장



**나 동 연**  
경남 양산시장  
무역학과  
전 양산시의회 부의장



**성 장 현**  
서울 용산구청장  
행정대학원  
전 용산구청장



**안 병 용**  
경기 의정부시장  
행정대학원  
신혜대학 교수



**오 규 석**  
부산 기장군수  
한의학과  
전 기장군수



**유 상 곤**  
충남 서산시장  
정치외교  
전 서산시장



**이 용 우**  
충남 부여군수  
대학원 정치학과  
부여복지원 이사장



**이 진 호**  
강원 양양군수  
농업경제학과  
전 양양군수



**이 철 우**  
경남 함양군수  
행정대학원  
전 울산시 부교육감



**허 남 석**  
전남 곡성군수  
행정대학원  
전 마포·곡성 경찰서장

지난 6월2일 치러진 제5기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모두 12명의 동문이 기초 단체장에 당선되었다.

이번에 당선된 기초단체장은 서울 용산구청장 성장현(97/99 행정대학원)동문을 비롯해 부산 기장군수에 오규석(88/94 한의학), 인천 연수구청장에 고남석(77/97 철학), 경기 의정부시장에 안병용(80/83 행정대학원), 강원 양양군수에 이진호(68/72 농경), 충남 서산시장에 유상곤(70/74정 정치외교), 충남 부여군수에 이용우(91/94 대학원), 전남 여수시장에 김충석(61/63 상학), 전남 곡성군수에 허남석(96/98 행정대학원), 경북 의성군수에 김복규(61/08행정), 경남 함양군수에 이철우(99/01 행정대학원), 경남 양산시장에 나동연(80/84 무역) 동문 등이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광역시·도의회는 11명, 시·군·구 등 의회는 24명이 당선된 것

로 파악되었다. 이번 6.2 지방선거에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 모두 130명의 동문이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역시·도의회 의원 당선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준희(67/69 행정대학원)=관악구  
성백열(행정대학원)=강남구  
김현기(94/01 행정대학원)=강남구
- ▲대구광역시 의원  
장경훈(64/68 경영)=북구
- ▲충청남도의회  
박찬중(67/74 행정)=금산군  
김득용(83/88 사회)=천안시
- ▲경북도의회  
한창화(사회과학대학원)=포항시  
박병훈(85/91 일문)=경주시  
구자근(89/93 법학)=구미시  
황이주(89/94 행정)=울진군

- ▲제주도의회  
김진덕(85/89 식공)=제주시
- ◇시·군·구 기초의원 당선자
- ▲서울특별시  
이종만(64/68 경영)=광진구의회  
김경자(81/85 영문)=양천구의회  
박필영(99/03 불교대학원)=동작구의회
- ▲인천광역시  
김철홍(72/80 국교)=중구의회  
이창환(80/88 무역)=연수구의회
- ▲울산광역시  
변식용(92/94 행정대학원)=남구의회  
안수일(80/87 미술)=남구의회  
최인식(98/00 법학)=울주군의회
- ▲경기도  
김완규(89/93 불교)=고양시의회  
이광호(87/91 회계)=남양주시의회  
김동별(96/98 교육대학원)=군포시의회
- ▲충청남도  
김환성(상학과 중퇴)= 서산시의회

- 이상구(81/88 인철)=논산시의회  
김학영(95/97 행정대학원)=계룡시의회
  - ▲전라남도  
강진원(69/71 대학원)=여수시의회
  - ▲경상북도  
이철구(05/07 경영)=포항시의회  
이상범(01/03사회과학대학원)=포항시의회  
정해종(05/07 경영)=포항시의회  
방진길(84/91 행정)=포항시의회  
정석호(01/05 법학)=포항시의회  
이종근(90/92 사회과학대학원)=경주시의회  
박승직(99/06 국사)=경주시의회  
권영일(67/72 도시공)=예천군의회  
이영해(사회과학대학원)=울산 비례대표
- 한편 본회에서는 선거전에 출마자 전원에게 필승격려 전보를 발송했으며 선거가 끝난후에는 당선자에게 축하전보를, 낙선자에게는 재기 위로전보를 각각 발송했다.

## 동국 의료원에서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으세요.

이제는 양·한방 협진·최첨단 시설·최고 교수 및 의료진을 갖춘 모교 동국 의료원에서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고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모교 의료원 MOU체결을 통해 동창회비 납부자에 한해 동국의료원 산하 병원 진료 시에 의료비 10~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양방병원	한방병원	종합검진	장례식장	기타
본인부담액	10%	10%	20%	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래 및 입원진료비</li> <li>• 선택진료비 포함</li> <li>• 치과진료비 포함</li> <li>• 장례식장 이용시 10% 할인</li> </ul>
장례식장 이용 시 할인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혜택</li> <li>- 시설(빈소 및 안치료)이용료의 10% 할인 + 영결식장 이용, 관내운구, 입관실 사용, 의료폐기물처리 증 제공 + 장의차량 10% 할인</li> <li>• 장례토달서비스 이용 시에 혜택</li> <li>- 동국완성형 서비스 이용 시에(280만원→250만원) 30만원 할인</li> </ul>				

■ 서울 중등학교 관리자동문회

# 회원 80여명으로 대학 최대 인원 자랑



조영구 현 회장

박일상 명예회장

김기덕 부회장

김성중 사무국장

본회는 '서울 중등학교 관리자 동문회' 지부를 탐방하고자 지난 7월 9일 '서울 중등학교 관리자 동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조영구 회장과 박일상 명예회장을 모시고 본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서울 중등학교 관리자 동문회'는 모교 학부출신 서울지역 중, 고등학교 교직원관리자들의 모임으로 총회원이 80여명이다. 이는 서울지역 대학 학부 출신 교직원 관리자 모임으로는 대학 최대 규모이다. 지난 6월 9일에는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가지기도 했다.

- 중등학교 관리자 동문회는 언제 처음으로 결성하게 되었으며, 결성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1999년 모교에서 대외협력처 주선으로 250여명의 모교 출신 교직원들이 모였고 이를 통해 모교 출신 동문 교직원 동문회가 결성되었다. 그 후 몇차례 모임이 있긴 했지만, 재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2001년 동대부고 모임을 마지막으로 모임이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2006년 중등교감 자격연수를 계기로 다시 재결성되었다.

그 자리에서 모교 출신 교장, 교감이 많은 것을 알게 됐고 연수에 참석한 60여명의 교장, 교감 관리자들이 모여서 '서울 중등학교 관리자 동문회모임'을 다시 결성하게 되었다.

- 중등학교 관리자 동문회는 현재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고.

:1년에 정기모임이 3월과 9월 각 한 차례씩 두 차례가 있다. 3월과 9월 모임에서는 1,2학기 각 학기마다 승진한 회원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 12월에도 이 모임들 외에도 부정기적으로도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만남을 가지고 있다.

정기 모임을 통해서 동문들이 모교

및 후배 지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보를 교환하고 모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서로 의견교환을 하기도 한다.

- 중등학교 관리자 동문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요?

:서울지역에서만 80여명의 모교 출신 교직원 관리자가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에도 최대 규모이다. 퇴직한 10여



▲ 지난 6월 9일 있었던 정기총회 장면

## 대학원 · 경인지역까지 확대 계획 이심전심으로 모교 우수학생 추천 노력 평교사 포함 전체 교직원 모임이 과제

명을 제외하고서라도 현재에도 70여명의 모교 출신 교직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출신을 제외하고 학부 출신 교장, 교감, 장학사, 연구사로 회원이 구성되어있음에도 8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동국대 자긍심을 나타내는 일이고 동문들이 자긍심을 가질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이러한 모임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회원은 모두가 교직원들이다. 교장의 숫자가 전체 교사의 3%이내, 교감은 5%이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회원들의 자부심은 더욱 크

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직에 몸담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각 학교 간의 정보교환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서로간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공감대가 더욱 중요하다. 각자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다르지만 뜻이 같고 형제같은 우애를 자랑한다. 회원들의 저서를 함께 축하하고 나눠 읽는 일, 애경사에 함께 하는 일 등도 우리 모임의 자랑이다.

- 앞으로 활동계획으로는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조직 규모가 커지고 조직이 제대로 정착되면 기존에 학부 출신으로만 회원을 구성한것에서 이를 넘어 대학원 출신까지 회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지역도 서울뿐만 아니라 경인지역까지 넓혀서 많은 동문들이 함께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정보를 교환하며 모교 발전을 위한 의견 교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 동문들에게 모교, 동국대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모교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준 곳이다. 때문에 우리가 동국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는 모교에 우리가 받은 혜택을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모교로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총동창회와 모교 동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고.

:우리 모임 회원중 70여명이 서울 지역 중고교에 현직으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을 염두해 두고 모교 측에서도 우리 모임과 접촉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우리 모임과 모교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로 협력하면 보다 더 우수한 인재들이 모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아이디어나 제도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 회원명단

강성천	68/72 국문	영동고등학교 교장
강신승	72/77 농경	등촌중학교 교장
강신일	77/84 국문	대원국제중학교 교감
고병원	72/76 체교	진선여자중학교 교감
구재완	71/75 과교	신광여자중학교 교장
권병욱	80/84 전산	녹천중학교 교장
권영택	73/77 인철	前진선여자중학교 교장
김기덕	70/74 세교	진선여자고등학교 교장
김성중	77/84 농생	중앙중학교 교장
김성환	72/76 과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교감
김영길	77/84 국교	前양천중학교 교감
김용관	65/72 농경	오남중학교 교감
김홍복	72/76 국문	배재고등학교 교감
김홍선	73/77 세교	동대부숙여자고등학교 교감
김원호	64/73 식공	관악중학교 교감
김종갑	75/82 사교	성명대학교시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
김창대	64/68 경제	前동덕여자고등학교 교장
김창희	74/78 수학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김철수	74/79 국교	중앙중학교 교감
김태원	72/77 체교	동대부여중 교장
김화실	74/78 수학	동대부중 교감
김희연	82/86 국교	보인고등학교 교감
나영수	63/65 국문	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
남기환	74/81 수교	신천중학교 교장
민 해	74/78 국교	해원여자고등학교 교감
박병철	76/84 세교	배명고등학교 교감
박상기	67/74 수학	인현중학교 교장
박애희	65/69 수학	前보성여자중학교 교장
박일상	70/77 국문	前동대부중 교장
박장욱	73/80 수학	前동대부고 교장/서울시교육감 후보
박재욱	74/81 수교	개봉중학교 교감
박종우	64/75 사학	동북고등학교 前교감
박춘구	85/87 교원	불광중학교 교감
박현우	78/84 화학	지양중학교 교장
배용만	72/76 체교	동대부여중 교감
서명석	78/85 사교	배재중학교 교감
성광제	67/75 영문	보인중학교 前교장
신동관	73/80 수교	상일여자중학교 교장
심갑섭	74/80 수교	광안고등학교 교감
안병주	73/79 화공	대광중학교 교장
양희섭	77/84 사교	신서중학교 교감
염동락	75/80 국교	신관중학교 교감
오영수	74/81 전기	노곡중학교 교장
오은규	69/73 세교	전)신연중학교 교감
오택원	73/77 국문	동대부고 교장
왕표순	46/52 정치	송곡정보산업고등학교 교장
왕현선	74/78 미술	송곡정보산업고등학교 교감
윤용식	77/84 사교	경북대학교 사무국장
윤희준	75/82 화학	진선여자고등학교 교감
이덕기	76/83 국교	성동고등학교 교감
이병무	65/72 영문	前진선여자고등학교 前교장
이상재	73/80 사교	동대부속중학교 교장
이선규	81/85 경영	교육연구원 장학사
이 연	64/71 국문	前상명여자중학교 교장
이운원	64/74 국문	前상일여자고등학교 교장
이원태	65/73 국문	대원고등학교 前교장
이운영	73/80 영문	장안중학교 교장
이정애	64/68 국문	상일여자중학교 前교장
이종을	71/77 사학	광문고등학교 교감
이태원	67/74 수학	前신림중학교 교장
임도명	71/78 국교	은성여자중학교 교장
장두수	72/77 국문	김포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전병화	80/87 국교	동작고등학교 교감
전치경	71/75 물리	한광고등학교 교감
정광수	74/81 국교	동북중학교 교감
정조채	72/79 국문	신광여자고등학교 교장
정창현	72/79 국문	한영고등학교 교감
정재동	65/69 경영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조영구	69/76 세교	경신고등학교 교장
조현술	76/82 농생	대동세무고등학교 교감
주원규	63/65 국문	前대성중학교 교장
최수길	60/67 국문	前영등포공업고등학교 교장
최수혁	76/80 조경	영도중학교 교장
최순희	76/81 수교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교감
최원호	71/78 세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최중성	73/80 국문	배명중학교 교장
한시연	72/76 가교	동대부여교 교장
한중호	75/78 건축	백암고등학교 교감
한형인	71/75 국문	서문여자고등학교 교감
황병근	77/84 수교	미양중학교 교감
황영남	80/84 국교	세종고등학교 교장
황재인	78/85 교육	前강동교육청 장학사

■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 삼성출판박물관장

# ‘문화재 지킴이 10만 양병론’ 내걸고 동분서주

“모교는 불교문화재 70% 이상으로 특성화 대학 가능”



김종규 동문

- ▲1939년 전남 무안 출생
- ▲1958년 목포상고 졸업
- ▲1964년 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 ▲1965년 삼성출판사 부사장
- ▲1987년 삼성출판사 대표이사
- ▲1992년 삼성출판사 회장
- ▲1990년 ~ 현재 삼성출판박물관장
- ▲1995년 정부 광복50주년 기념사업 위원회 위원
- ▲1996년 ~ 한국메세나협회 이사
- ▲2004년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이사장 등

김종규(64/67 경제)동문에게는 별명이 많다. ‘걸어다니는 박물관’ ‘문화계 마당발’ 등. 이들 별명은 모두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이리저리 발벗고 뛰는 김 동문의 노력이 돋보이는 별명이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문화유산신탁 신입 이사장으로 선출돼 이곳저곳에서 ‘문화재지킴이 10만 양병’을 강조하고 있다.

김 동문이 있는 삼성출판박물관을 찾아가 김 동문으로부터 김 동문이 현재 맡고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재지킴이’가 되라고 전파하고 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국민과 기업 등의 기부를 받아 문화재를 매입해 보존·관리·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출범한 기구이다.

현재는 소설 ‘태백산맥’ 무대였던 전남 보성군 벌교의 보성여관을 매입해 복원 및 문화공간화 작업 중이다. 또한 경북 울릉군의 근대건축물 이영관 가옥의 보수 복원공사도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인 이상의 집터를 문화공간화 하는 사업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동문은 “우리 문화재 중에서도 불교 문화재가 70% 이상이다. 역사가 100년이 넘는 우리 모교는 불교가 그 중심에 있기에 발전 가능성이 어느 대학보다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모교와 총동창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열심히 한다면 앞으로도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는 애정이 담긴 말도 잊지 않는다. 모교와 총동창회에 대한 신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현재 김 동문이 관장으로 있는 ‘삼성출판박물관’도 김 동문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삼성출판박물관’은 김 동문이 1960년대부터 여기저기서 수집한 소중한 유물들을 비롯해 국보, 보물 등 총 10만여점의 유물을 한데 모아놓은 곳이다. 지난 1990년에 개관해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이했다.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한나라의 문화는 근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근본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고리타분한 곳이 아니라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유물과 문화를 통해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자 앞장서는 김 동문이 있기에 우리 문화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 삼성출판박물관 ... 국보·보물급 많아 문화재 마당발로 봉사활동에 보람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 복원 사업 앞장

탁 관련 소식과 모교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문화재지킴이 10만 양병’은 말 그대로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지킴이를 늘리자는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우리 문화재 지킴이 10만명이 활동한다고 생각해 보라. 10만명이 우리 몸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면 우리 문화재가 함부로 훼손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김 동문은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부터 더욱더 적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문

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은 지난 3월로 200명을 넘어섰으며 6월말 현재는 13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을 묻자 김 동문은 “회원확대를 통해서 조직이 커지면 전국에 있는 없어지기 쉬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며 “선진국은 예방학이 발달하고 후진국은 치료술이 발달한다는 말이 있듯이 문화재가 파손되기 전에 문화재를 지키고, 회원들이 자기 고장에 있는 문화재를 지킬

## ■ 차민수 프로 갬블러

## 대규모 카지노 단지 구축에 올인



칩 존슨과 8백 여 가지가 넘는 포커 관의 속임수를 읽는 비법을 연마케 해주었던 돈 캐럿은 그의 운명을 결정지어준 잊지 못할 스승

프로 갬블러 차민수(69/73 경제).

그의 이름 옆에는 항상 화려한 라이프 스토리와 닉 네임이 따라붙는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올인'의 실제 주인공. 끼가 넘치는 청춘기의 방종함(?)으로 자유분방한 삶을 누리다 모친에게 떠밀려 쫓기듯 표류해간 미국 내빈털터에서 카지노 전문 갬블러로 백만장자의 반열에 오르는 데 단 3년이 걸린 초고속 카드의 마술사. 마피아 보스의 보디가드로 파란을 겪으며 경쟁에 성공, 96년과 97년 라스베이거스 프로 포커 수입 1위의 자리에 등극한 전설적인 존재 등등...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감히 꿈도 꾀보

이라고.

차 동문은 편모슬하의 2남 2녀중 막내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다. 모처에 극장을 갖고 있던 모친은 자식에게 재능을 키워줘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리란 교육철학을 갖고 있었고 그 덕에 어려서부터 다방면의 교육을 받아 현재는 쿡후 공인 7단 외에도 수영과 탁구, 태권도를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이며 바이올린과 피아노까지 능숙하게 연주하는 클래식 마니아이다. "밥고 경쾌한 모짜르트를 특히 좋아하는 낭만적인 사나이"라고 자신을 홍보하며 웃는 차 동문. 냉혹한 승부사의 포스와 함께 여유로운 인간미가 느껴진다.

## 쿡후 공인 7단에 모짜르트 즐겨 연주

## 제2의 마카오·두바이 꿈에 바쁜 일정

지 못할 전문 영역을 종횡무진 경계없이 넘나들면서 넘치는 프로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해온 차민수 동문. 그의 폭발적인 끼와 재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 2005년 한국관광공사 초청으로 모국에 귀환, 제주도 카지노 개발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또 한 차례의 응비를 꿈꾸고 있는 차민수 동문을 만났다.

드라마 올인을 보며 기대했던 이미지와는 달리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같은 소탈한 미소로 "나는 늘 평범한 게 좋습니다"라고 말문을 여는 차민수 동문. 그러나 그가 걸어온 인생역정은 절단코 평범치도 흔치도 않은 이력이 아닌가. 자신이 흑시 천재라는 생각은 안 해 봤냐고 묻자 "그런 생각은 해 본 적 없어요. 난 다만 내 인생에서 '안 된다는 없다.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삽니다." 프로 갬블러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피나는 공부의 결과였다고 한다. 1985, 6년 경 미국 전역의 고수들이 물려들던 스타드(Stud)나 홀덤(Holdem)게임이 시작되면서 "누구는 처음부터 잘 했잖나." 포기와 은퇴를 고려 중이던 방향을 틀어 오기로 도전했던 프로 포커의 세계.

당시 그에게 포커의 정도를 가르쳐준

대학원 강의와 함께 각종 기업 초청 강사로도 명강연을 펼치고 있는 차 동문은 최근 정부에 제안한 제주도 개발 프로젝트로 몹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동북아 10억 인구의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경관 제주도를 '명품 도시'로 발전시켜 제2의 마카오와 두바이를 건설하겠다는 것.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60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수백 억 달러의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카지노를 퇴폐적으로 보는 경향이 짙어 안타깝습니다. 부가가치가 높고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국민 계몽이 절실합니다." 영화 '타짜'를 언급한 질문에는 "사기꾼의 최고수를 과장해 그린 거 아니냐.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그건 진정한 갬블이 아니라 위험하고 불건강한 노름일 뿐이죠."라고 충고를 잊지 않는 차 동문.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제주도에 분교를 만들고 학교부지도 마련해보고 싶이라며 따뜻한 모교 사랑을 펼친다.

"드라마 올인의 이병헌과 지성과 정호빈 셋을 합친 것이 제 본래의 모습인 것 같아요."라며 활짝 웃는 차민수 동문. 그가 꿈꾸는 제주도 프로젝트가 장대하고 아름답게 실현되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 ■ 이재용 MBC아나운서

## "방송 직종 동문 하나로 모으겠다."

지난 7월 9일 본회는 상임위원회에 신입 부회장들을 추가해 새롭게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새롭게 홍보1담당 부회장을 맡게 된 이재용(84/88 수교, 본회 부회장)동문도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 '젊은' 동창회를 만들어 가는데 주축이 되어 동창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이재용 동문을 여의도 MBC에서 만났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모교 출신 동문들이 동국대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1담당 부회장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소감을 묻자 이 동문은 현재 언론계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문들의 소재를 파악해 동문들을 하나로 뭉쳐서 총동창회에까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기회를 통해 80학번 동문들이 총동창회 상임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젊은 생각과 창의적인 활동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 중심에 이 동문이 있다.

이 동문은 지난 1992년 MBC아나운서로 입사해 MBC 간판 아나운서로 활동, 올해로 18년째가 되었다. 현재 MBC아나



계 활동을 시작하면서 모교에 대한 애정도 함께 키워왔다. 지금도 모교를 알리는 일이나 모교에 관한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참석하고 활동하면서 애정이 남다르다. 얼마 전에는 이 동문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활약차 모교 연영과 출신 후배인 배우 류시원 동문과 학교로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도서

## '불만제로' '~ 약이 되는 밥상' 등 진행

##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 등 대외활동 활발

운서국 차장 및 MBC아나운서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만제로' '기분좋은 날' '명인이 추천하는 약이 되는 밥상' 등 TV와 라디오를 넘나들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다.

이동문이 진행을 맡았던 주요 프로그램은 '찾아라 맛있는 TV' '생방송 화제 집중' '네버엔딩 스토리' '아주 특별한 아침' '당신과 이밤을' '지금은 라디오 시대' 등으로 시청자와 청취자들에게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아나운서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부드러운 인상과 목소리로 그를 아끼는 대중들에게 '돌쇠'라고 불리우며 어필하고 있는 이 동문. '돌쇠'라는 별명은 다른 아나운서들에 비해 말투가 조금 투박하다며 입사초기에 선배들이 붙여준 별명. 말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보람과 재미를 느낀다는 이 동문에게 있어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천직(天職)인듯 싶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학생회관 5층에 있던 방송국으로 가서 아나운서 언제 뽑는지부터 물어봤어요. 아나운서 뽑는다는 공고를 보자마자 바로 지원했죠" 모교 재학 당시에도 모교 방송국인 'DUBS'의 아나운서로 활동했었다. 아나운서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그렇

관과 옥상 정원을 비롯해 시설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며 흐뭇해 한다.

방송활동에 모교 지원까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신없을 듯 하지만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한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평소에 여유 시간이 많지 않다보니 틈틈이 뉴스와 신문을 접하고 그와 관련된 서적을 회사 서점에서 구입해 읽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선정 아동권리협약 홍보대사에 위촉되어 그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장애인 재단 홍보대사,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로 임명돼 현재까지 활동하면서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에 모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은 것에 이어 3월에는 모교에서 국내 최초로 개설한 'IPTV 고위정책과정'에 입학해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오는 가을학기부터는 모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특강도 진행할 예정이다.

# 국내최초 약학MBA과정 신설

## 대한약사회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모교 경영전문대학원(원장=양동훈)은 오는 9월부터 국내 최초로 약학 MBA과정인 Pharm-MBA를 신설한다.

모교 경영전문대학원장 양동훈 교수는 "최근 리베이트 싼별죄 도입 등 제약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국시장도 대형화 추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약학, 즉 과학적 지식은 물론 경영학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약학 MBA 과정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정은 병원약국장, 산업체 마

케팅 담당이사, 공장장, 약국설립자 등 약학업계 업무 종사자들이 대상이며, 약학 전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약학 MBA 과정은 4학기 과정으로 수료후 약학 MBA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약학 MBA과정은 보건복지부, 식약청, 제약회사 관계자 및 연구소 재직자, 약사, 약국개원(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약학 MBA지원자 중 2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교는 대한약사회와 지난 6월 28일 모교 본관 로터스홀에서 약학 MBA(Pharm-MBA)과정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모교와 대한약사회는 모교 경영전문대학원 Pharm-MBA 과정의 인력 파견·추천에 따른 재정 지원, Pharm-MBA 과정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 필요에 따른 양기관간의 교류협력 사업과 기타 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상호 인력교류 등을 진행하게 된다.

## 화학과 장학기금 5천만원

올해 2학기부터 지급 예정

화학과동창회(회장=유국현, 모교 이과대학장)가 지난 7월19일 학과 장학기금으로 5천만원을 모교에 기부했다.

화학과동창회는 2007년 2천만원을 시작으로 2008년 3천만원, 2009년 7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5천만원을 납부해 매년 장학기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몽골사막에 '자비의 숲'

모교 바이오시스템대학과 생명과학연구원 연구원이 구성한 '몽골방문대표단'은 몽골 바츨버(Batsumber)에 위치한 몽골국립대학 연습림에서 '동국·몽골대 자비의 숲 조성 기념식'을 열고 비타민나무(일면 사막보리수나무) 1000여 그루를 식재했다.

'자비의 숲'은 모교의 건학이념 실천을 위해 붙여진 이름으로, 이번 숲 조성 기념식에는 박정국 단장과 몽골국립대학 쯔그바드락(Tsogbadrakh) 대학원장을 비롯한 동국대·몽골국립대학 관계자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자비의 숲이 조성되는 바츨버는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전진기지로서, 동국대와 몽골대는 총 10ha(9만 9000㎡) 규모의 숲 조성을 목표로 매년 2ha씩 개간하고, 이 숲에 2015년까지 총 1만여 그루의 비타민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 '불이상' 연구분야 수상



김종욱(불교학부)교수= 올해 불이상 연구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불이상은 1974년 창립된 불이회(회장=홍라희)가 한국불교계의 활성화와 새로운 재가불교, 여성불교의 위상을 높이고자 제정한 것으로 지난 1985년부터 시행돼 올해 25회째를 맞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7월 5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상금은 2000만원.

김종욱(불교학부)교수= 올해 불이상 연구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불이상은 1974년 창립된 불이회(회장=홍라희)가 한국불교계의 활성화와 새로운 재가불교, 여성불교의 위상을 높이고자 제정한 것으로 지난 1985년부터 시행돼 올해 25회째를 맞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7월 5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렸다. 상금은 2000만원.

## 전자문화지도 국제회의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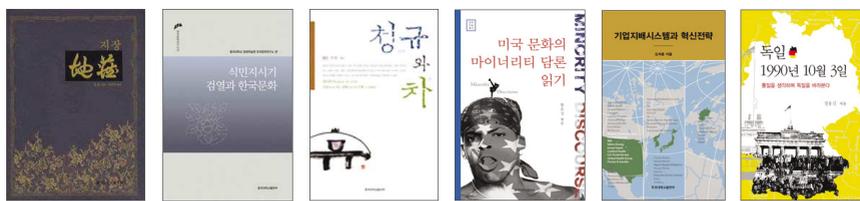


진월스님(경주 불교학부)교수=지난 6월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에서 열린 2010 전자문화지도 협회(Electronic Cultural Atlas Initiative, ECAI) 공동연구회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문화유산 수집, 보존, 정보전파'를 주제로 미국, 중국, 인도, 호주, 러시아, 스리랑카, 몽고 등 9개 국의 지리학, 역사학, 고고학, 고전학 등 인문학과 전자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출판부 간행 책 7권 우수 도서 선정

학술원-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모교 출판부에서 간행한 6종 7권의 도서가 대한민국학술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주관하는 2010년 우수학술도서 선정됐다.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는 <지장> I·II, <독일 1990년 10월 3일>, <기업지배시스템과 혁신전략>이 뽑혔고 문광부 우수학술도서에는 <청규와 차>, <미국문화의 마이너리티 담론 읽기>, <식민지기 검열과 한국문화>가 선정됐다.

학술원과 문광부 우수학술도서에 6종 이상 선정된 대학출판부는 모교를 비롯해 서울대와 서강대 등 총3곳뿐이다.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된 도서 중 <독일 1990년 10월 3일>(정용길 지음)은 독일 통일의 과정을 짚어 보며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진단한 책으로, <한국정치학회>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하고 "2009년 올해의 학술상" 선정도서로 수상한 바 있다.

대한민국학술원 기초학문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책들은 앞으로 대학이나 연구단체로 보급될 예정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책들 역시 문광부에서 일정 수량을 구매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된다.

## 미래원천기술 개발사업 25억원 수주

### 모교 연구팀, 급성뇌경색 첨단 치료술 도전

일산동국대병원 김동역(신경과)교수가 지난 지난 7월초 교육과학기술부 시행 2010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의학-첨단과학기술 융합원천기술개발)에 '맞춤형 급성뇌경색 치료를 위한 뇌신경혈관계 분자표적 기반 나노분자영상 기술개발'로 연구지원 과제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김교수는 향후 5년간 연간 5억원씩 총 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김교수는 "이번 과제 수행을 통해 급성 뇌경색 진료 현장에서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전산화단층촬영·투시촬영장치 기반 분자영상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개발된 분자영상 기술은 뇌졸중 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약물효과 소동물 스크리닝 시스템에 활용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 의약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지원 과제 선정으로 모교 일산병원은 지난해 임근일(정형외과)교수가 '무세포이식 연골재생기술 개발' 지원과제에 선정된데 이어 2년 연속 교과부의 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에 참여되는 개가를 올렸다.

### '티베트어 한글표기안' 발간

경주캠퍼스 티베트장명연구소가 티베트어 연구를 위한 '티베트어 한글표기안' 책자를 발간했다.

42쪽 분량의 소책자로 발간된 '티베트어 한글표기안'은 티베트어 음운론, 티베트어 한글표기, 티베트어화된 범어표기, 티베트어 한글표기안을 따른 음절 표기의 실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 필리핀서 의료봉사

'동국대 거리' 지정 되기도

모교 경주캠퍼스 동국참사람봉사단 30여명이 6월26일부터 7월1일까지 7박 8일동안 필리핀 알바이주 리가오시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벌였다.

봉사활동은 아학당 짓기, 담 보수, 배수로 정화 등의 노력 봉사와 함께 한국 문화와 전통 알리기, 영어연수 등을 실시했다.

리가오시는 모교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감사하는 뜻으로 2008년에 시내 2km 구간을 '동국대 거리'로 지정하고 표지석도 설치했으며, 금년으로 4년째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선출



최응렬(경찰행정학과)교수 = 한국공안행정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간이다.

## 세계 3대 인명사전 등재



류부형(경주캠퍼스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교수 =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2011년판과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2000 Outstanding Scientists 2010' 및 미국의 인명정보기관(ABD)의 'Great Minds of the 21st Century 5th ed.'에 등재가 확정됐다.

1994년부터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재직중인 류 교수는 전기절연재료 및 전기안전분야에 관한 꾸준한 연구 성과와 SCI 등 저명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탁월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세계 인명사전에 잇따라 등재됐다.

# 재미교포 10억원 토지 기증

## 미 네바다주 이정자씨 모친 유지 받들어



▲ 재미교포 이정자(오른쪽 두번째)씨가 미국 네바다주 임야 5만여평(시가 10억 상당)의 토지를 정각원장 법타스님을 통해 모교에 기증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교포 이정자 씨가 모교에 시가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기증했다.

미국 네바다주에 살고 있는 이정자씨는 지난 6월 28일 오영교 모교 총장을 만나 토지를 기부하고 불교포교와 학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밝혔다. 이 씨는 모교 정각원장 법타스님이 미국 관음사

만 1천4백여평으로 재산가치가 높아 시가 10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번에 기증하게 된 토지는 독실한 불자이셨던 모친 유지를 이어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동국대학교에 기부하게 됐다"고 기부소감을 말했다.

에 법사로 주석할 때 쌓은 인연을 바탕으로 종립대학인 모교에 토지를 기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씨가 이번에 기증한 토지는 네바다주에 위치한 임야 5

# 농식품부 '농업연구센터' 지정

## 10년간 매년 10억원씩 지원받아 연구 진행

모교가 정부로부터 첨단 농식품 융복합 기술과제를 연구할 첫 '농업연구센터', 즉 ARC로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모교의 <지능형 농식품 포장연구센터>와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 서울대 농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등 세 곳이 정부의 첫 ARC로 선정됐다.

모교와 서울대 ARC 세 곳은 앞으로

최장 10년동안 매년 10억원씩 100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매년 3곳씩 모두 15곳을 ARC로 선정하고 2024년까지 최대 천500억원을 ARC의 연구개발, R&D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 기숙사 친환경시스템 도입

모교는 내년에 완공할 서울 캠퍼스 기숙사에 태양열과 지하수를 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착공한 새 기숙사 옥상에는 36KW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고, 잔디와 나무를 심는 등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 휴게 공간에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분수대가 만들어진다. 기숙사 외벽에도 넝쿨 나무 등을 심기로 했고 빗물은 청소용이나 조경 식수

로 사용할 방침이다.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인 기숙사는 장애인실 5실과 2인실 373실 등 378실로 설계됐고, 전체 751명이 생활할 수 있다. 식당과 체력단련실, 정보플라자, 기숙사용세미나실 등도 마련된다.

기숙사는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기숙사를 민자로 짓게 되며, 민간 사업자는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2031년 대학에 반환하게 된다.

### 신간안내

#### 최재성 브리핑



최재성(84/93 불교, 국회의원) 지음  
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최재성 동문이 2007년 2월 처음으로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할때부터 2008년 2월까지의 브리핑 내용을 담은 저서이다. 대선이나 정권, 한미FTA, 쇄고기 촛불정국 등 각 시기별 시사 이슈에 대해 발표했던 브리핑을 모아놓았다. 또한 언론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던 13초 한줄 브리핑을 부록으로 함께 다뤘다.

#### 처음 마음 그대로



심산스님(82/86 선학) 지음  
《처음 마음 그대로》는 불심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대한 불교조계종 흥법사 주지스님인 심산스님이 지난 10여년간 불교신문에 게재했던 작품을 한권의 책으로 엮은 수필집이다. 저서를 통해 저자의 개인적인 체험을 소소하게 표현하면서도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며 느낀 사실을 공유한다. 저자는 불자 개인의 수행도 중요하지만 포교 활동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 산보다 깊은 고요



구태회 (87/93, 행정대학원, 본회 상무이사) 지음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태회 동문이 '산보다 깊은 고요'라는 시조집을 출간했다. 구 동문의 첫 시조집인 《산보다 깊은 고요》에는 <별빛으로 내려온다> 등 64편의 시조를 수록했다. 이 시조집을 통해 구 동문은 지난날 자신의 삶속에서 써내려간 추억, 아픔, 사랑 등을 아름다운 시어로 노래한다.

#### 단돈 500원으로 이룬 나의 꿈 나의 성공



이재창(00/04 경영) 지음  
단돈 500원 들고 경북 영주에서 서울로 상경해 자수성가한 이재창 동문. 현재 (주)태양트레이 회장과 영동새마을금고 이사로 재직 중이고 강남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동문이 유년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生), 성장(成長), 환원(還元), 학(學), 애(愛), 희망(希望)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석탑산업훈장 수상

강재우(56/57 사학, (주)일야하이텍 대표이사)동문이 지난 7월 14일 열린 전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 초대회장



구자선(79/81 경영 대학원) 동문이 지난 6월 공식 출범한 '한국경제인불자연합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됐다. 구 동문은 (주)자연과 사람 회장으로 있다.

존경받는 한국인 대상 수상



우태주 (66/70 경영, 한국광학기협회 상근 부회장)동문이 지난 6월 22일 소비자연합TIMES가 주최하는 '존경받는 한국인 수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전지방국세청장 부임



박동열(73/78 행정, 본회 부회장)동문이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임명돼 지난 6월 30일 취임식을 가졌다. 박 동문은 학구파로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금메달 수상

이영호 동문(61/65 정외)이 지난 6월 12일 '2010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인라인스케이트 골든부 1,000m 종목에서 102명 선수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효도회 신임 회장 추대



정동일(01/05 경영, 전 서울 중구청장)동문이 사단법인 한국효도회 중앙회장으로 추대됐다.

흥국생명 대표이사 선임



변종윤(80/85 무역) 동문이 지난 6월 11일 흥국생명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우리자산운용 신임 CIO로 영입



장동훈(81/87 무역) 동문이 우리자산운용 신임 운용본부총괄 최고투자책임자(CIO)에 영입되었다.

인 사

▲ 최해영(79/83 경행) =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 ▲ 남택화(79/83 경행) = 서울 강서경찰서장
- ▲ 황성모(74/78 경행) = 서울 노원경찰서장
- ▲ 엄용흠(75/82 경행) = 대구 수성경찰서장
- ▲ 최성철(72/76 경행) = 인천청 경무과장
- ▲ 이성형(74/81 경행) = 인천청 정보과장
- ▲ 안중익(77/81 경행) = 인천 삼산경찰서장
- ▲ 최원일(78/82 경행) = 인천 연수경찰서장
- ▲ 나유인(77/81 경행) = 광주청 정보통신담당관
- ▲ 박청규(73/77 경행) = 대전청 청문감사담당관
- ▲ 윤창수(76/83 경행) = 울산 남부경찰서장
- ▲ 백동산(76/80 경행) = 경기청 제3부 보안과장
- ▲ 윤동길(73/80 경행) = 경기 제2청 생활안전과장
- ▲ 이성억 = 용인 서부경찰서장(개청준비)
- ▲ 구분걸(74/81 경행) = 안양 민안경찰서장(개청준비)
- ▲ 이상원(77/81 경행) = 경기 포천경찰서장
- ▲ 김성권(80/83 경행) = 강원 포천경찰서장
- ▲ 신상석(78/85 경행) = 강원 속초경찰서장
- ▲ 이문수(80/84 경행) = 충북 괴산경찰서장
- ▲ 윤대표(72/76 경행) = 충북 보은경찰서장
- ▲ 조용식(82/86 경행) = 전북 김제경찰서장
- ▲ 전병현(77/84 경행) = 경남청 생활안전과장
- ▲ 강명조 =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 담당관

결 혼

- △양규철(64/68 농학)=5월30일 차남 승현군 결혼
- △장장순(58/65 법학)=6월3일 장녀 승희양 결혼
- △황우열(71/75 인철)=6월5일 장녀 옥나양 결혼
- △배기열(76/80 체교)=6월19일 장녀 하나양 결혼
- △윤관욱(73/77 화공)=6월26일 차남 병용군 결혼
- △이병국(69/73 농학)=6월27일 장남 정훈군 결혼
- △김기석(65/69 상학)=6월26일 차남 창환군 결혼
- △한상인(69/73 토목)=7월11일 장남 명국군 결혼
- △이종호(79/81 농학)=7월17일 차남 한구군 결혼

김오현 동문 '한국·베트남 국제문화교류 대축제'

사단법인 '살기좋은나라 아름다운 손길' 이사장으로 있는 김오현(76/80 체교 BK그룹 회장)동문이 지난 7월16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제3회 한국·베트남 국제문화교류 대축제'를 열었다. 행사에는 지난 7월12일 방한한 응옌 탄 쉐언 베트남 종교위원장(장관급)을 비롯해 트란 트롱 톤 주한 베트남 대사, 당 타이 텅 국제협력국장, 응옌 반 통 기독교 대표, 레반 그우 하노이시 종교위원장, 후인 응옥 탄 호찌민시 종교위

원장, 응옌 반 켄 우정협회 부회장, 레 후영 닥 호찌민시 우정협회장, 레 광 빈 인민원조 조정부위원 등 베트남 종교관계자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 본회 송석환 수석부회장, 이재형 박상호 우태주 전영화 부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재 국내에는 베트남 다문화가정 여성3만2000여 명과 근로자·유학생 등 모두 5만명이 넘는 베트남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 거주 한국인은 8만여 명에 달한다.



▲ 국제문화교류축제를 주재하고 있는 김오현동문(오른쪽에서 네번째)

부 음

모교 이병주 명예교수 별세

모교 명예교수인 이병주(47/51) 동문이 지난 6월 24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이 동문은 독보적 연구 학문인 '두시언해'를 강의하며 모교에서 30여 년간 재직했으며, 문과대학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정만(63/67 정외)=5월28일 부친상

- ▲배환진(58/62 불교, 본회 지도위원)=6월5일 지병으로 별세
- ▲정동진(65/69 국문)=6월25일 모친상
- ▲안병국(71/75 건축)=7월1일 부친상
- ▲황보기(54/58 법학)=7월23일 지병으로 별세
- ▲조호철(90/92 정보산업대학원)=7월28일 부친상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회비납부기간 : 2010년 3월 1일 ~ 2010년 7월 16일)  
동문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회비·기금은 총동창회와 모교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1. 금액·성명 가나다순.
2. 회비·기금 납부시 성명·졸업년도·학과를 필히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만원)

고 문

 선진규 (55/59불교) 고 문 300만원	 김동정 (53/57법학) 고 문 100만원	 김재기 (56/60경제) 고 문 100만원	 박종윤 (56/59경제) 고 문 100만원	 전순표 (53/57농학) 고 문 100만원	 송석환 (64/68농경) 수석부회장 100만원
---	---	---	---	--	---

상임(담당)부회장

 변타스님 (67/74인철) 부회장 100만원	 박용재 (66/70법학) 부회장 100만원	 서영준 (64/68법학) 부회장 100만원	 손학중 (65/69농경) 부회장 100만원	 이상직 (82/89경영) 부회장 100만원	 이재형 (64/68불교) 부회장 100만원
--	---	---	---	--	---

상임(담당)부회장

 차민수 (69/73경제) 부회장 100만원	 최진수 (78/85연영) 부회장 100만원	 김희욱 (68/72법학) 부회장 100만원	 보광스님 (71/75불교) 부회장 100만원	 윤성열 (59/63상학) 부회장 100만원	 이두철 (89/91사원) 부회장 100만원	 장상순 (58/65법학) 부회장 100만원	 전영화 (65/69경영) 부회장 100만원	 정동일 (01/05경영) 부회장 100만원	 정인악 (55/60화학) 부회장 100만원
---	---	---	--	--	---	---	---	---	---

상임부회장

 조문영 (56/60법학) 부회장 100만원	 조은구 (64/68경제) 부회장 100만원	 한영희 (57/61경제) 부회장 100만원	 한우삼 (63/69농학) 부회장 100만원	 허수항 (08/08불원) 부회장 100만원	 구자선 (79/81경영) 부회장 100만원	 구자정 (61/64상학) 부회장 100만원	 김규태 (93/95행원) 부회장 100만원	 김동길 (57/60경제) 부회장 100만원	 김문영 (64/69상학) 부회장 100만원
---	---	---	---	--	---	---	---	---	---

부회장

 김현완 (54/58법학) 부회장 100만원	 김진선 (71/74행정) 부회장 100만원	 나경미 (70/74정외) 부회장 100만원	 무염스님 (92/94불원) 부회장 100만원	 문형진 (90/92불원) 부회장 100만원	 박재호 (83/87연영) 부회장 100만원	 박찬대 (56/62농학) 부회장 100만원	 박한수 (86/90연영) 부회장 100만원	 백문기 (60/63법학) 부회장 100만원	 서정호 (71/76경영) 부회장 100만원
---	---	---	--	--	---	---	---	---	---

부회장

 선해자스님 (96/98불원) 부회장 100만원	 성각스님 (97/99불원) 부회장 100만원	 성영석 (67/71경영) 부회장 100만원	 성웅스님 (91/93불원) 부회장 100만원	 성월스님 (92/94불원) 부회장 100만원	 손창수 (81/87한외) 부회장 100만원	 신동수 (71/75경영) 부회장 100만원	 심산스님 (82/86선학) 부회장 100만원	 안민동 (80/83행원) 부회장 100만원	 안형도 (75/82통계) 부회장 100만원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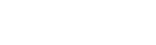
부회장

 양개석 (93/95행원) 부회장 100만원	 유정환 (03/07경영) 부회장 100만원	 육기동 (61/65식공) 부회장 100만원	 윤길한 (64/71정외) 부회장 100만원	 윤부성 (61/63생물) 부회장 100만원	 윤영탕 (63/67국문) 부회장 100만원	 이동훈 (97/99국원) 부회장 100만원	 이상현 (54/58경제) 부회장 100만원	 이승성 (76/77체교) 부회장 100만원	 이시우 (91/93행원) 부회장 100만원
---	---	---	---	--	---	---	---	---	---

부회장

 이은갑 (62/74경영) 부회장 100만원	 이재창 (00/04경영) 부회장 100만원	 이진호 (68/72농경) 부회장 100만원	 이태경 (73/80전산) 부회장 100만원	 이호만 (59/64정외) 부회장 100만원	 이화일 (61/65상학) 부회장 100만원	 임영신 (53/57경제) 부회장 100만원	 장민수 (72/77농경) 부회장 100만원	 장세풍 (61/65경제) 부회장 100만원	 정광장 (65/69상학) 부회장 100만원
---	---	---	---	--	---	---	---	---	---

부회장

 정연황 (58/62정치) 부회장 100만원	 진재경 (73/77영문) 부회장 100만원	 차문희 (72/79정외) 부회장 100만원	 채규민 (58/75정외) 부회장 100만원	 최준섭 (05/07불원) 부회장 100만원	 최진식 (77/83무역) 부회장 100만원	 한경구 (61/64임학) 부회장 100만원	 이제곤 (64/68경제) 감 사 100만원
---	---	---	---	--	---	---	---

동국장학회 기금 2010.1.1 ~ 2010.7.28

 나경미 (70/74정외) 부회장 5천만원	 이두철 (89/91사원) 부회장 3천만원	 송석환 (64/68농경) 수석부회장 2천만원	 모교 정각원 원장 변타스님 1천만원
 전영화 (65/69경영) 부회장 200만원	▲배충남(85/92회계) 15만원 ▲김재웅(85/92회계) 10만원	 이인정 (65/72상학) 부회장 2천만원	<b>발전기금</b>

감사

임원분담금 납부 안내

외환은행 150-22-01536-0  
예금주: 동국대학교총동창회

<16면에서 이어짐>

고문 분담금

- ▲류근창 (46/50분학) 30
- ▲신국주 (46/50사학) 30
- ▲원용선 (59/63영문) 50
- ▲윤일균 (67/69행원) 30
- ▲이민휘 (52/56정치) 20
- ▲자승섭 (09/09불원) 50

지도위원 회비

- ▲권기종 (60/64불교) 30
- ▲권영수 (58/64법학) 30
- ▲김보열 (57/62경제) 30
- ▲김인규 (60/64정의) 30
- ▲김희형 (56/60정치) 30
- ▲문효치 (62/66국문) 30
- ▲민병철 (62/66상학) 30
- ▲민태진 (56/60화학) 30
- ▲박은규 (57/61정치) 30
- ▲신상두 (60/64법학) 30
- ▲심춘섭 (57/61정치) 30
- ▲오진모 (57/61법학) 30
- ▲윤천영 (59/62농학) 20
- ▲윤홍섭 (65/72상학) 30
- ▲이광세 (86/88경원) 30
- ▲이병화 (63/64정의) 30
- ▲이용성 (59/63법학) 30
- ▲인중식 (53/57경제) 30
- ▲조희영 (59/63경영) 30
- ▲지흥재 (53/58경제) 30
- ▲최규철 (64/66정의) 30
- ▲현성섭 (72/73행원) 30

부회장 회비

- ▲김유광 (57/63영문) 50
- ▲송영인 (63/67통계) 30
- ▲이재창 (00/04경영) 2
- ▲정창근 (73/77무역) 10
- ▲최규연 (78/81행정) 10
- ▲홍성표 (67/71도공) 10

상임이사 회비

- ▲강수일 (59/64상학) 20
- ▲강의현 (58/60경제) 20
- ▲구봉회 (64/68정의) 20
- ▲구연식 (87/90교원) 20
- ▲구태회 (87/93행원) 20
- ▲권수구 (75/82국문) 20
- ▲권혁조 (62/66정의) 20
- ▲김관수 (63/66행정) 20
- ▲김덕현 (71/75농학) 20
- ▲김동조 (75/83농경) 20
- ▲김래동 (80/81행원) 20
- ▲김문선 (79/83전자) 20
- ▲김봉춘 (61/65정치) 20
- ▲김사훈 (79/80행원) 20
- ▲김삼현 (59/65불교) 20
- ▲김상배 (85/92물리) 20
- ▲김성강 (60/04법학) 20
- ▲김성동 (82/86행정) 20
- ▲김승웅 (64/72경영) 20
- ▲김영상 (59/63법학) 20
- ▲김영환 (63/67정의) 20
- ▲김용구 (70/74농경) 20
- ▲김용길 (61/65법학) 20
- ▲김운락 (98/99사원) 20
- ▲김유명 (81/88사회) 20
- ▲김유중 (67/73정의) 20
- ▲김재문 (66/70법학) 20
- ▲김종서 (59/62법학) 20
- ▲김종찬 (94/99경영) 20
- ▲김진억 (73/80경영) 20
- ▲김창기 (95/97경원) 20
- ▲김창환 (65/67경영) 20
- ▲김중석 (61/63상학) 20
- ▲김철봉 (58/63법학) 20
- ▲김태현 (84/89불교) 20
- ▲김해근 (60/64입학) 20
- ▲김현삼 (81/85영문) 20
- ▲김흥우 (60/64연원) 20
- ▲김희수 (00/01사원) 20
- ▲남공소창 (70/74법학) 20
- ▲류복수 (95/96사원) 20
- ▲류승희 (65/72경영) 20
- ▲문준수 (69/74인철) 20
- ▲박명순 (64/68불교) 20

- ▲박부엽 (59/63상학) 20
- ▲박수철 (53/57입학) 20
- ▲박종세 (92/94경영) 20
- ▲박하서 (97/01사원) 20
- ▲방조원 (77/78행원) 20
- ▲법운섭 (93/95불원) 20
- ▲성낙흔 (82/83행원) 20
- ▲손문영 (69/73사원) 20
- ▲송영근 (84/88영문) 20
- ▲신명식 (95/97정원) 20
- ▲신준선 (71/72행원) 20
- ▲심재익 (59/64농학) 20
- ▲안중진 (51/59영문) 20
- ▲양규철 (64/68농학) 20
- ▲오만식 (90/92정원) 20
- ▲오학선 (94/96행원) 20
- ▲왕종섭 (59/63불교) 20
- ▲위종성 (64/71농경) 20
- ▲유국현 (79/83화학) 20
- ▲유대진 (59/63상학) 20
- ▲유문희 (65/69식공) 20
- ▲윤만진 (94/96경원) 20
- ▲윤세철 (61/70국문) 20
- ▲윤영훈 (90/98산공) 20
- ▲윤용숙 (93/95불원) 20
- ▲윤택 (61/66경제) 20
- ▲이계영 (73/80전산) 20
- ▲이덕원 (68/72사학) 20
- ▲이동열 (95/02관광) 20
- ▲이순우 (60/64경제) 20
- ▲이승주 (89/96농경) 20
- ▲이영자 (62/63불교) 20
- ▲이용훈 (72/77농생) 20
- ▲이윤래 (61/69행정) 20
- ▲이재용 (64/71상학) 20
- ▲이재호 (73/81경원) 20
- ▲이점구 (96/99산원) 20
- ▲이중주 (58/62법학) 20
- ▲이창수 (80/87회계) 20
- ▲이정준 (67/71경영) 20
- ▲이준필 (99/01불교) 20
- ▲이흥재 (97/00산공) 20
- ▲이필영 (63/71사학) 20
- ▲이학송 (78/82불교) 20
- ▲이홍섭 (80/84회계) 20
- ▲장근도 (59/65경제) 20
- ▲장동락 (70/77정의) 20
- ▲장세균 (67/72철학) 20
- ▲정동호 (72/77정의) 20
- ▲정미숙 (84/88연원) 20
- ▲정범섭 (92/94경영) 20
- ▲정우식 (88/93철학) 40
- ▲정재기 (64/68정의) 20
- ▲조국형 (58/62정치) 20
- ▲조시영 (86/90회계) 20
- ▲조중근 (61/65상학) 20
- ▲지만호 (86/94행원) 20
- ▲최락상 (71/75전기) 20
- ▲최병식 (59/64불교) 20
- ▲최세화 (48/56국문) 20
- ▲최영철 (95/97불원) 20
- ▲최영환 (63/67농학) 20
- ▲태진섭 (98/02불원) 20
- ▲하만장 (90/92경원) 20
- ▲허남운 (97/97사원) 20
- ▲허봉주 (87/89경원) 20
- ▲홍석표 (75/82경영) 20
- ▲홍지석 (91/98회계) 20
- ▲황경환 (87/89교원) 20
- ▲무기명 20

이사 회비

- ▲강기영 (74/78토목) 10
- ▲강만형 (85/87행원) 10
- ▲강무남 (64/68경영) 10
- ▲강재웅 (83/91산공) 10
- ▲강전희 (78/81경원) 10
- ▲강태선 (07/09경원) 10
- ▲강희석 (97/00행정) 10
- ▲계성섭 (78/81승가) 10
- ▲고재용 (76/80화학) 10
- ▲국기일 (58/63경제) 10
- ▲권중원 (64/68상학) 10
- ▲길 욱 (70/72행원) 10
- ▲김광호 (80/88회계) 10
- ▲김교필 (76/80화학) 10
- ▲김기석 (65/69상학) 10
- ▲김동길 (93/95경원) 10
- ▲김득음 (83/88사회) 10

- ▲김민섭 (68/72법학) 10
- ▲김명길 (70/74공경) 10
- ▲김병호 (85/89미술) 10
- ▲김문겸 (64/68농경) 10
- ▲김상중 (62/66농경) 10
- ▲김성용 (73/77경영) 10
- ▲김수창 (65/69불교) 10
- ▲김영린 (64/77법학) 10
- ▲김영운 (76/83정의) 10
- ▲김영필 (86/93정의) 10
- ▲김영희 (71/79식공) 10
- ▲김원규 (63/70농학) 10
- ▲김용진 (69/73경원) 10
- ▲김용태 (63/67식공) 10
- ▲김은구 (75/82입학) 10
- ▲김진수 (80/81경원) 10
- ▲김인중 (77/81회계) 10
- ▲김인환 (84/90법학) 10
- ▲김재홍 (56/60경제) 10
- ▲김정길 (63/68인철) 20
- ▲김종진 (68/72제어) 10
- ▲김진용 (58/65경제) 10
- ▲김진환 (84/89철학) 10
- ▲김태웅 (91/93행원) 10
- ▲김택웅 (00/01사원) 10
- ▲김해백 (65/69응생) 10
- ▲김홍섭 (65/69법학) 10
- ▲나영수 (63/65국문) 10
- ▲문찬식 (74/78회공) 10
- ▲민경봉 (60/64법학) 10
- ▲민병휘 (63/67상학) 10
- ▲박대은 (97/98사원) 10
- ▲박명국 (76/83체교) 10
- ▲박봉선 (60/66경제) 10
- ▲박상문 (64/66국문) 10
- ▲박수열 (89/91행원) 10
- ▲박용하 (77/81정의) 10
- ▲박인호 (85/93산공) 10
- ▲박인호 (85/93산공) 10
- ▲박정기 (81/85경제) 10
- ▲박종원 (64/68경제) 10
- ▲박준국 (77/81공경) 10
- ▲박학수 (64/68경영) 10
- ▲박형봉 (70/77전자) 10
- ▲박재호 (93/01수학) 10
- ▲박흥서 (68/72통계) 10
- ▲방원석 (54/58정치) 10
- ▲배성덕 (82/89경제) 10
- ▲백경선 (80/84불교) 10
- ▲백재승 (73/77통계) 10
- ▲사기순 (84/88국문) 10
- ▲서동부 (92/93사원) 10
- ▲서동필 (71/78경제) 10
- ▲서상해 (70/74정의) 10
- ▲서재석 (80/86전산) 10
- ▲성순경 (91/93불원) 10
- ▲손승환 (55/61정치) 10
- ▲손양호 (70/74불교) 10
- ▲손일환 (93/94사원) 10
- ▲송경우 (84/88영문) 20
- ▲송우근 (98/99경원) 10
- ▲송철호 (90/94경제) 10
- ▲송철호 (90/94경제) 10
- ▲신만근 (63/70경영) 10
- ▲신창식 (80/85경제) 10
- ▲신현태 (54/57경제) 10
- ▲신형철 (77/81체교) 10
- ▲신화섭 (84/92화학) 10
- ▲안병민 (68/72도공) 10
- ▲양경직 (65/69농경) 10
- ▲양영삼 (63/67경제) 10
- ▲양재일 (64/71정의) 10
- ▲염만용 (71/75건축) 10
- ▲오재환 (61/66정의) 10
- ▲우성용 (64/69경영) 10
- ▲유재선 (66/70농경) 10
- ▲유제복 (74/78통계) 10
- ▲유진봉 (74/82시행) 10
- ▲윤주호 (99/00사원) 10
- ▲이갑재 (00/01사원) 10
- ▲이갑재 (00/01사원) 10
- ▲이건명 (70/74토공) 10
- ▲이경부 (58/65법학) 10
- ▲이경범 (65/69경영) 10
- ▲이길수 (79/85정의) 10
- ▲이남진 (46/49불교) 10
- ▲이덕기 (76/83국교) 10
- ▲이동철 (69/73경영) 10
- ▲이명욱 (65/69행정) 10
- ▲이민형 (79/83무역) 10
- ▲이상록 (74/81미술) 10

- ▲이상재 (73/80사교) 10
- ▲이상평 (62/66영문) 10
- ▲이서행 (67/71철학) 10
- ▲이석우 (63/67행정) 10
- ▲이상진 (81/85토목) 10
- ▲이영기 (80/84운리) 10
- ▲이영길 (64/73농생) 10
- ▲이영식 (01/02사원) 10
- ▲이윤영 (71/78토목) 10
- ▲이일교 (82/89무역) 10
- ▲이종관 (63/67통계) 10
- ▲이창익 (49/52정치) 10
- ▲이춘자 (95/97경원) 10
- ▲이태운 (64/71법학) 10
- ▲이 황 (72/08식공) 10
- ▲임경호 (70/75전자) 10
- ▲임귀수 (84/88농생) 10
- ▲임상진 (84/91정의) 10
- ▲임 준 (81/85체교) 10
- ▲임진섭 (80/84정의) 10
- ▲임 화 (51/55법학) 10
- ▲장구한 (91/92불원) 10
- ▲장적섭 (86/90산학) 10
- ▲장준영 (66/70경영) 10
- ▲전종무 (81/85미술) 10
- ▲전진표 (60/64입학) 10
- ▲전찬익 (75/82농경) 10
- ▲정경호 (64/73농학) 10
- ▲정낙진 (81/83행원) 10
- ▲정만진 (74/78법학) 10
- ▲정세영 (54/58법학) 10
- ▲정호경 (95/97불원) 10
- ▲조갑환 (71/75수교) 10
- ▲조남현 (73/80무역) 10
- ▲조석규 (68/72도공) 10
- ▲조원상 (74/78전자) 10
- ▲조정곤 (59/62법학) 10
- ▲조중익 (54/58정치) 10
- ▲조창원 (55/57경제) 10
- ▲조태호 (59/63경영) 10
- ▲조흥기 (59/63영문) 10
- ▲조화제 (00/ 국원) 10
- ▲지재성 (60/67정의) 10
- ▲진성섭 (04/07불원) 10
- ▲차진구 (78/82건축) 10
- ▲최병곤 (84/86경원) 10
- ▲최병순 (04/08국통) 10
- ▲최 석 (57/61영문) 10
- ▲최석관 (84/88법학) 10
- ▲최 인 (64/68상학) 10
- ▲최주익 (99/02사원) 10
- ▲최창영 (61/67법학) 10
- ▲하한기 (77/84건축) 10
- ▲한규범 (78/80경원) 10
- ▲한대현 (89/91경원) 10
- ▲한상태 (76/80행정) 10
- ▲한성규 (65/69물리) 10
- ▲한호성 (93/98회계) 10
- ▲허남태 (80/87행정) 10
- ▲허정수 (80/84경제) 10
- ▲허진석 (83/87국문) 10
- ▲현인서 (73/77식공) 10
- ▲현중섭 (05/불원) 10
- ▲현해천 (73/75행원) 10
- ▲홍성하 (65/72응생) 10
- ▲홍형덕 (49/53정치) 10
- ▲황기석 (99/00사원) 10
- ▲무기명 10

일반회원

- ▲강연희 (04/08국통) 2
- ▲강영길 (95/97경원) 2
- ▲강재우 (56/57사학) 2
- ▲고광규 (56/61물리) 2
- ▲고봉재 (95/98정원) 2
- ▲고성길 (64/68통계) 2
- ▲고안언 (59/63경영) 2
- ▲교육자 (79/83영문) 2
- ▲고창환 (64/68경영) 2
- ▲고형종 (64/72국문) 2
- ▲곽종석 (65/71경제) 2
- ▲구인사 2
- ▲구자근 (89/93법학) 2
- ▲권영욱 (79/82전산) 2
- ▲권정의 (98/05경영) 2
- ▲김갑수 (76/83경제) 2
- ▲김경석 (78/82불교) 2
- ▲김금년 (65/상학) 2
- ▲김기영 (95/02경영) 2
- ▲김남근 (65/72상학) 2
- ▲김대용 2
- ▲김대철 (69/77정의) 2
- ▲김덕운 (87/93의학) 2
- ▲김동희 (98/부동산) 2
- ▲김득규 (64/사학) 2
- ▲김민수 (84/88경영) 2
- ▲김방근 (68/75경영) 2
- ▲김백한 (59/64법학) 2
- ▲김병상 (58/60경제) 2
- ▲김병시 (74/행원) 2
- ▲김보현 (74/78불교) 2
- ▲김부동 (90/철교) 2
- ▲김삼규 (98/98국원) 2
- ▲김삼기 (94/ 불원) 2
- ▲김상수 (67/71경영) 2
- ▲김성흥 (61/65법학) 2
- ▲김성수 (64/68경영) 2
- ▲김성열 (92/99경영) 2
- ▲김성인 (01/07의학) 2
- ▲김순제 (56/경제) 2
- ▲김승현 (99/07식공) 2
- ▲김영배 2
- ▲김영호 2
- ▲김영희 (05/07문원) 2
- ▲김용립 (99/01연원) 2
- ▲김우성 (89/96회계) 2
- ▲김우영 (94/01한외) 2
- ▲김원식 (74/83경영) 3
- ▲김원철 (68/75영문) 2
- ▲김윤환 (73/80경영) 2
- ▲김은희 (06/일문) 2
- ▲김인기 (81/85법학) 2
- ▲김자광 (80/87회계) 2
- ▲김재문 (60/62법학) 2
- ▲김재웅 (65/69영문) 2
- ▲김재창 (57/60국문) 2
- ▲김재호 (01/06불교) 2
- ▲김정민 (58/60경제) 2
- ▲김정만 (64/72정의) 2
- ▲김중기 (07/08불원) 2
- ▲김종덕 (66/70경영) 2
- ▲김종원 (62/64국문) 2
- ▲김주언 (63/70경영) 2
- ▲김주용 (96/04일문) 2
- ▲김준근 (89/96화학) 2
- ▲김지권 (82/86영문) 2
- ▲김지원 (98/03국문) 2
- ▲김진원 (61/65경영) 2
- ▲김찬익 (04/부동산) 2
- ▲김철수 (93/부동산) 2
- ▲김춘곤 (75/ 불교) 2
- ▲김태범 (84/88무역) 2
- ▲김한기 (03/05행원) 2
- ▲김한성 (91/한외) 2
- ▲김해동 (91/93정원) 2
- ▲김현규 (06/부동산) 2
- ▲김현태 (59/65법학) 2
- ▲김형수 (82/90회계) 2
- ▲김홍렬 (59/65경영) 2
- ▲김홍철 (60/65경제) 2
- ▲김희동 (00/04경영) 2
- ▲김희동 (00/04경영) 2
- ▲남시혁 (56/58정치) 2
- ▲남지현 (88/93연원) 2
- ▲노은진 (03/08경영) 2
- ▲덕오스님 (불원) 2
- ▲류근선 (86/92사학) 2
- ▲류윤현 (78/경영) 2
- ▲무예섭 2
- ▲민현석 (65/국문) 2
- ▲박광래 (58/61경제) 2
- ▲박기현 (03/05국통) 2
- ▲박동준 (05/07한외) 2
- ▲박동해 (58/65법학) 2
- ▲박봉근 (78/85정의) 2
- ▲박상갑 (95/ 불교) 2
- ▲박성진 (60/62정치) 2
- ▲박성해 (58/63법학) 2
- ▲박영희 (97/ 불원) 2
- ▲박용규 (02/08경영) 1
- ▲박응섭 (52/국문) 2
- ▲박인호 (93/01경영) 2
- ▲박재원 (93/95산원) 2
- ▲박정미 2
- ▲박종태 (64/68경제) 2
- ▲박창규 (87/91법학) 2
- ▲박천운 (67/73경영) 2
- ▲박치훈 (94/ 불원) 2
- ▲박합수 (86/90회계) 2
- ▲박해춘 (59/61경제) 2
- ▲박현우 (00/04회계) 2

- ▲박희수 (77/84사학) 2
- ▲배용성 (64/70경제) 2
- ▲배충남 (62/66상학) 2
- ▲서거원 (60/64경제) 2
- ▲서두호 (82/87무역) 2
- ▲서병수 (58/62경제) 2
- ▲성기호 (61/65상학) 2
- ▲성하룡 (56/60정치) 2
- ▲소유진 (00/04연원) 2
- ▲손경희 2
- ▲손상필 (62/66경제) 2
- ▲손성훈 (97/00교육) 2
- ▲손용선 (77/81경제) 2
- ▲손원호 (84/93회계) 2
- ▲송기훈 (65/71경제) 2
- ▲송무훈 (55/61법학) 2
- ▲송용운 (64/71행정) 2
- ▲송호택 (82/90경영) 2
- ▲신덕승 (93/불교) 2
- ▲신통기 (03/05행원) 2
- ▲신태태 (81/88무역) 2
- ▲신태우 (56/59경제) 2
- ▲신태원 (80/86한외) 2
- ▲신태기 (70/74행정) 2
- ▲신태진 (85/89회계) 2
- ▲안순환 (66/70상학) 2
- ▲안한상 (67/69국문) 2
- ▲양기덕 (84/88회계) 2
- ▲양승룡 (03/07국통) 2
- ▲양정기 (65/73통계) 2
- ▲양중모 (64/66국문) 2
- ▲여은규 (55/60영문) 2
- ▲여환준 (67/71법학) 2
- ▲연희재 (59/법학) 2
- ▲오선호 (84/88영문) 2
- ▲오세청 (60/67상학) 2
- ▲오인종 (94/부동산) 2
- ▲오창수 (97/99불원) 2
- ▲우철아 (04/08경영) 2
- ▲유기준 (61/65연원) 2
- ▲유상갑 (64/66법학) 2
- ▲유영호 (57/62경제) 2
- ▲유일상 (72/79전산) 2
- ▲유관수 (58/61법학) 2
- ▲윤석재 (70/74경영) 2
- ▲윤영길 (59/65경제) 2
- ▲윤원균 (87/94회계) 2
- ▲윤종욱 (82/행원) 2
- ▲윤천식 (64/69경제) 2
- ▲윤홍일 (47/51영문) 2
- ▲이강환 (83/87행정) 2
- ▲이강희 (56/59법학) 2
- ▲이광섭 (65/69상학) 2
- ▲이규나 (83/행원) 2
- ▲이기호 (78/85경영) 2
- ▲이남영 (66/71경영) 2
- ▲이 란 (95/ 불원) 2
- ▲이면규 (81/88무역) 2
- ▲이명래 (79/86행정) 2
- ▲이명우 (56/61국문) 2
- ▲이문갑 (88/92경제) 2
- ▲이민후 (64/69통계) 2
- ▲이병길 (71/화학) 2
- ▲이봉근 (56/60법학) 2
- ▲이봉환 (01/04경영) 2
- ▲이상길 (89/96영문) 2
- ▲이석구 (59/64국문) 2
- ▲이석주 (71/78법학) 2
- ▲이성근 (68/75경영) 2
- ▲이성지 (84/91영문) 2
- ▲이성호 (58/64법학) 2
- ▲이순권 (58/63정치) 2
- ▲이승준 (84/88일문) 2
- ▲이신철 (56/63법학) 2
- ▲이연욱 (97/문원) 2
- ▲이영보 (59/65법학) 2
- ▲이영진 (90/96의학) 2
- ▲이윤희 (74/81영문) 2
- ▲이원희 (64/72영문) 2
- ▲이은섭 (58/64경제) 2
- ▲이인서 (64/70법학) 2
- ▲이장걸 (56/62사학) 2
- ▲이재관 (77/83경제) 2
- ▲이재봉 (65/68물리) 2
- ▲이재석 (86/90경영) 2
- ▲이정곤 (54/58법학) 2
- ▲이종국 (54/57영문) 2
- ▲이종원 (85/92사학) 2
- ▲이종원 (46/50국문) 2

- ▲이종환 (80/경영) 2
- ▲이주섭 (87/93의학) 2
- ▲이 준 (56/60생물) 2
- ▲이지영 2
- ▲이지형 (89/94철학) 2
- ▲이창섭 (99/한외) 2
- ▲이태식 (85/87교원) 2
- ▲이택수 (66/70경제) 2
- ▲이풍규 (59/64법학) 2
- ▲이학설 (56/61법학) 2
- ▲이학용 (68/72불교) 2
- ▲이훈운 (82/86회계) 2
- ▲이희수 (06/부동산) 2
- ▲인형식 (61/65영문) 2
- ▲임금동 (81/85경영) 2
- ▲임명석 (98/문원) 2
- ▲임성봉 (68/경제) 2
- ▲임종립 (82/90철학) 2
- ▲임지수 (82/86경제) 2
- ▲임진수 (60/66행정) 2
- ▲임창빈 (97/98경원) 2
- ▲임형진 (98/06법학) 2
- ▲장광수 (80/84경영) 2
- ▲장규환 (63/경제) 2
- ▲장덕만 (94/행원) 2
- ▲장명수 (01/03행정) 2
- ▲장민석 (84/89경영) 2
- ▲장병수 (06/부동산) 2</

